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선수단이 23일 합평 챌린저스필드에서의 마지막 훈련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타이거즈 합평캠프 마무리... 내일부터 광주서 훈련 재개

KIA 합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의 '합평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일 합평 챌린저스필드에서 2022 스프링캠프를 시작한 KIA가 23일 훈련을 끝으로 합평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KIA는 24일 휴식일을 보낸 뒤 25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한다. 그리고 26·27일에는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처음 합평에서 치른 캠프는 성공적이었다.

추운 날씨에 고전은 했지만 실제 연습장을 활용해 큰 차질 없이 훈련이 전개됐다.

26·27일 한화와 연습경기 예정

한화 10명 코로나 확진, 일정 고민

지난해 2군 캠프를 치르면서 더해진 노후로도 움이 됐다.

지난해 불펜 옆면을 막아 추위와 바람에 대비했던 KIA는 이번 겨울에는 아예 불펜 전체를 비닐로 감싸 대형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다.

난로도 곳곳에 배치해 날씨에 특히 민감한 투수들이 차질 없이 불펜 피칭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따뜻한 불펜은 수비 훈련장으로도 활용됐다.

KIA는 또 선수들이 편안하게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추가 배치해 인터뷰실도 마련했다. 클럽하우스와 영광 속소를 활용해 합숙훈련까지 진행하면서 '팀워크'도 더했다. 클럽하우스에서 합숙을 한 젊은 선수들은 야간에도 자율 훈련을 하면서 밤낮으로 실력을 키우기도 했다.

아쉽게도 부상 변수는 피하지 못했다.

임기영과 이의리가 각각 옆구리 근육 미세 손상과 중지 물집으로 캠프 명단에서 제외됐다. 선발진에 부상은 나왔지만 '플랜B'가 가동됐고, 다행히 이외에 큰 부상 없이 합평에서의 캠프 일정이 마무리됐다.

합평 캠프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진짜 캠프는 이제부터다.

22일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시동을 건 주전 경쟁

이 본격화된다. 연습경기 일정 등이 진행되면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보여주면서 치열한 자리싸움을 벌이게 된다.

경쟁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부상에 대한 걱정도 커진 상황. 경쟁 속 실전이 진행되는 만큼 선수들에게는 '건강'이 우선 목표가 될 전망이다.

또 하나 코로나19 상황도 캠프의 긴장감을 키운다. 캠프 시작에 앞서 KIA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명단에 변화가 있었지만, 캠프 기간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코로나 안전지대'였다.

앞서 KIA는 합평에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광주로 장소를 옮겨 캠프를 치르게 되면 선수들의 동선과 접촉자가

확대된다.

여기에 연습경기 상대인 한화에서 18일 6명이 확진됐고, 22일에 4명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습경기 일정에 대한 고민도 있다.

마무리 정해영도 '코로나'를 언급했다.

"합평에서 맛있는 밥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 습기는 했지만 생각대로 몸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어제 첫 라이브도 했는데 처음치고는 좋았다. 최대한 피칭 때처럼 던지려고 했다"며 합평 캠프를 평가한 정해영은 "광주 가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코로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광주 캠프를 앞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 첼시(잉글랜드) 대 릴OSC(프랑스)의 경기에서 첼시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한 크리스티안 풀리시치(오른쪽)가 팀 동료 카이 하베르츠에게 득점을 축하받고 있다. /연합뉴스

첼시, 릴 2-0 꺾어 UEFA 챔스 2연패 '순항'

16강전 유벤투스-비야레알 무승부

'디펜딩챔피언' 첼시(잉글랜드)가 릴(프랑스)과 첫판에서 완승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첼시는 2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릴과의 2021-2022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 홈 경기에서 카이 하베르츠와 크리스티안 풀리시치가 전 후반 골씩 터트려 2-0으로 이겼다.

이로써 첼시는 다음 달 17일 열린 원정 2차전에서 한 골 차로만 패해도 8강에 올라 대회 2연패 도전에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첼시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하베르츠가 전반 8분 왼쪽 코너킥 때 하킴 지예흐가 올린 크로스를 골문 앞에서 헤딩으로 쏘아 넣어 균형을 깼다.

이후에도 릴이 반격이 이어졌으나 조나스 데이비드의 슈팅이 골문 위로 날아가는 등 무위로 돌아갔다.

첼시는 후반 들어 부상 변수에 맞닥뜨렸다. 미드필더 마테오 코바치치와 지예흐가 연달아 다쳐 후반 6분에는 루벤 로프터스-치크, 후반 15분에는 사울 니게스가 차례로 교체 투입됐다.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첼시는 후반 18분 승부를 더 기울이는 데 성공했다.

역습 상황에서 은골로 칸테가 공을 몰고 간 뒤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쇄도하던 풀리시치에게 내줬고, 풀리시치가 오른쪽으로 마무리해 쐐기를 박았다.

이후 릴은 교체 카드를 활용하며 한 골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첼시 골문은 끝내 열리지 못했다.

유벤투스(이탈리아)는 비야레알(스페인)과 원

정 경기에서 두산 블라호비치의 '번개골'에도 1-1 무승부를 거뒀다.

다만날라 하프라인 부근에서 길게 올린 공을 블라호비치가 상대 수비수 두 명과 경합하며 페널티 지역 안 오른쪽에서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오른쪽 골문을 갈랐다.

지난달 겨울 이적시장에서 유벤투스가 피오렌티나(이탈리아)에 이적료 7천만유로와 성격에 따른 보너스 1천만유로 등 최대 8천만유로(약 1천80억원)를 지불하기로 하고 영입한 세르비아 국가대표 공격수 블라호비치의 챔피언스리그 데뷔 골이었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후반 21분 비야레알 에티엔 카푸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 지역 정면으로 빠져들어간 다니 파레호가 왼발 눈스킥으로 연결해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개막전 뛰는게 목표... 만루홈런 꼭치고싶다"

KIA 외야 경쟁에 뛰어든 김석환

'급할수록 돌아온' 김석환이 KIA 외야 경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KIA는 지난 22일 캠프 첫 연습경기를 소화하면서 본격적인 주전경쟁에 돌입했다.

실전이 시작되면서 1군 캠프에 새로 가세한 선수도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김석환이다.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석환은 1군에서 5경기를 소화했다. 시간은 짧았지만 프로 첫 안타-타점-홈런을 수확하며 눈길을 끌었고 특히 파워를 보여주면서 장타 고민에 빠진 KIA의 특급 유망주로 떠올랐다.

달라진 기대감 속에 캠프를 준비했지만 아쉽게 코로나 이슈로 김석환의 걸음이 느려졌다.

김석환은 "겨울에 운동만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처음 이를 정도는 스트레스 받고 혼란스러웠다. 주위에서 액땀했다고 생각하라고 해줘서 좋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잔류군에서 일단 화이트 위주로 했다. 쉬었던 기간이 있으니까 체력 훈련에 중점을 두고 몸을 만든 뒤 2군 캠프에 합류해서 배팅, 수비를 천천히 시작하고 라이브, 연습경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석환

21일 2군에서 연습경기를 소화한 김석환은 22일에는 1군 캠프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렀다. 좌익수로 5이닝, 1루수로 2이닝을 소화했다.

김석환은 "생각했던 것보다 타이밍도 좋고 느낌도 좋다. 몸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고 실전 소감을 이야기했다.

지난 시즌을 보내면서 '자신감'을 얻은 김석환은 비시즌 기간 KIA의 차세대 좌익수로도 주목받았다.

김석환은 "기회가 왔으니까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크다. 기회가 받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더 하자는 생각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기회를 잡기 위해 겨우내 준비도 잘했다.

김석환은 "전역하고 좋게 시즌을 마무리했고, 마무리 캠프 때도 많이 배웠다. 비시즌에 1주일 쉬고 바로 운동을 시작했다. 12월에는 웨이트 위주로 했고, 1월부터는 기술과 웨이트를 했다. 예전보다 더 빨리 준비했다"며 "스윙 스피드에 신경 썼고 외야, 1루 수비도 연습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파워"로 경쟁에 나서겠다는 김석환은 "힘 빼는 법"부터 배우고 있다.

김석환은 "파워가 자신 있다. 내가 가진 장점을 연습경기 때 보여드리면 감독님께서 시합에 내보

내 주실 것이니까 잘해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스윙 부분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다. 풀 스윙 위주로 했는데 공이 맞아야 하니까 간결한 스윙 연습을 많이 했다. 코치님들이 힘 빼고 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좋은 스윙이니까 힘 빼고 하라고 하신다. 배팅할 때 타격 들어가기 전 자세부터 힘 빼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성범은 김석환에게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김석환은 "같은 조라서 나성범 선배님 치는 걸 봤는데 스윙이 진짜 간결했다. 훈련을 많이 치시는 데 스윙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간결한데 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다"며 "내 훈련 아닐 때도 선배들 치는 걸 많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늦은 합류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김석환은 '개막전 스타팅'을 목표로 남은 캠프를 치를 생각이다.

김석환은 "누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잘하면 내 자리가 되는 것이니까 나부터 잘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며 "개막전부터 1군에서 스타팅 뛰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최종 목표는 144경기 풀타임 뛰고 싶지만 일단 절반 정도 스타팅으로 뛰는 것이다. 또 만루에서 홈런을 쳐본 적이 없는데 올해 꼭 만루홈런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